

# 학생만 5·18 교육 치중...공공기관은 관심 밖

## 5·18기념재단, 실태조사 발표

광주·전남지역 공공기관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교육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5·18 교육은 비교적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반면, 교원·직무 연수에서 5·18 교육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 오월 시민교육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18기념재단은 최근 2년간(2021~2022년) 광주·전남지역 공공분야 5·18교육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 광주·전남 공무원 직무교육 저조

“조례 제정 제도적 기반 마련을”  
이달 중 관련기관과 집담회 추진

공공분야는 ‘일반행정’, ‘교육’, ‘경찰’ 분야로 세분화 했으며, 조사 대상은 광주시청, 광주시교육청, 광주경찰청, 전남도청, 전남도교육청, 전남경찰청이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교육분야

집합교육 95개 중 5·18 관련 교육은 ‘호남권(전남, 전북, 제주)의 역사교육 공동연수’ 로 단 1개에 불과했다. 원격교육은 324개 중 ‘선생님과 함께하는 5월 이야기’ 1개였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도 ‘인권도시’ 로서 광주 시정 방향에 5·18 관련 내용이 포함됐으나 실제 교육의 비중은 낮았다. 직무공통과목 38개 중 5·18 관련 교육은 1개(5·18, 광주를 넘어 세계로)에 그쳤다.

경찰 분야에서는 업무의 특성상 인권교육에 대한 강조를 대·외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5·18 관련 교육이 정식으로 배정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전남지역 교육분야는 학생 대상 5·18교육을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에 비해 교원 연수로서의 5·18 관련 교육은 부재했다.

104개의 생애 단계별 직무연수 중 ‘남도민주평화 역사문화기행 직무연수’ (8개)가 배정돼 있고, 각 지역 역사문화기행 코스 중 5·18 관련 사적지 탐방만 포함됐다. 일반행정 분야는 물론, 경찰 분야에서도 5·18 관련 교육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 공공분야에서의 5·18교육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

해서는 직무교육훈련 내 5·18 관련 교육이 정식으로 배치되어야 하는 한편, 공무원 직무 교육으로서 5·18교육의 형식과 내용을 연구·개발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며 “이를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5·18기념재단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중 ‘광주·전남지역 공공분야 5·18교육 활성화 방안’을 위한 집담회’를 광주·전남 각 1회씩 총 2회 진행 할 예정이다. 집담회를 통해 각 시·도 의회,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해 공공분야 5·18교육은 물론 오월 시민교육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5·18기념재단과 ‘인권지기 활짝’이 함께 진행했으며, 전남지역 공공분야 5·18교육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는 이달 중 열릴 집담회에서 배포된다. /최환준 기자

## 광주·전남교육청 ‘감사·홍보관 임용’ 교육감 동창·수의계약 적절성 논란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비판 “청렴도 하락 우려...인사 철회를”

광주시·전남도교육청이 최근 임용한 개방형직위 감사관과 홍보담당관을 두고 지역사회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 개방형직위 감사관은 이정선 시교육감의 고교 동창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는가 하면, 도교육청 홍보담당관은 채용 과정에서 도교육청과 인쇄물 납품 수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나 부적절하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1일 시·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 유병길 감사관과 도교육청 김학주 홍보담당관은 이날부터 공식 임용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의 임기는 2년으로 오는 2024년 9월까지이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이 임용한 감사관과 홍보담당관이 이해충돌로 인해 공정하고 정당한 직

무수행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임용된 시교육청 신임 감사관(유병길씨)이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기 동창인 것을 두고 지역사회 내 논란이 일고 있다”며 “감사행정의 독립성을 해치는 등 청렴도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선 교육감 이후 시교육청 감사관은 교육 비리를 응징하고, 총지 수수 관행을 뿌리 뽑는 등 광주교육의 ‘포청천’으로 불렸다”며 “개방형 감사관 임용을 도입하면서까지 청렴한 풍토를 만들어 온 성과가 용두사미가 되어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

전교조 전남지부 관계자도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다”며 “도교육청이 신뢰와 공정성을 회복하려면 이번 홍보담당관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환준 기자

### “별초 등 야외 활동 ‘별 쏘임’ 주의하세요”

전남소방본부는 추석을 앞두고 별초와 성묘 등으로 별 쏘임 사고가 잇따라 주의를 당부했다.

별 쏘임 사고는 7월부터 급증해 8월에서 9월 사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 이는 기온 상승으로 활동이 왕성해지고 개체군이 급격하게 늘어나

는 말벌류의 생애주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남지역 별 쏘임 이송 건수는 8월 현재 69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42건)보다 57.4% 증가했으며 올 7월에서 8월까지 이송 건수 또한 580건으로 지난해(357건)보다 62.4% 늘었다. /임재민 기자



추기 석전대제 1일 오전 광주향교에서 열린 추기 석전대제에서 현관과 제관들이 대성전으로 향하고 있다. 석전대제는 매년 음력 2월과 8월 초상정일(上丁日)에 공자, 안자, 증자, 자사, 맹자 4성인과 송조 6현 중 정호, 주희 그리고 우리나라 설총, 최치원, 안향 등 18현인을 모시고 제향을 올리는 의식이다. /김태구 기자

## 법원 “광주시, 평등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부당”

###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 승소

법원이 광주시의 평등 준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취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1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

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에 앞서 현대엔지니어링 측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광주시의 처분이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1998년 평등 준공업 지역 지정 이후 개발 요구 민원이 지속되자 일대를 미래 전략 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민간사업자를 공모했다.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한류 문화콘텐츠 육성용 골자로 21만㎡ 부지에 공연장, 스튜디오 등을 설치한 뒤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개발 계획에 아파트, 주상복합 비중이 높아 난개발 우려와 함께 한류 사업 실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는 난개발 방지 등에 대해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결렬을 선언하고 지난해 6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했다. /최환준 기자

<h2>장성 토지(매매, 분양)</h2> <p>광주에서 20분 (6M도로인접)</p> <p>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p> <p>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p> <p>[전원주택, 물류창고, 주말농장, 별장, 투자적합]</p>	<h2>상무지구(상가매매)</h2> <p>1) 감정가 (시세) 9억 매매가 7억 (용4억가)</p> <p>2) 월수익 350만 (보4천)</p> <p>3) 평수140평, (전용100평)</p> <p>사무실, 빠, 유흥주점, 모든업종가 (즉시입주가, 시비없음, 시설완비)</p>	<h2>경매교육 [ 특수전문반 ]</h2> <p>기초반, 중급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특수반모집 -&gt; 유치권, 법지, 지분, NPL(전문)</li> <li>2) 전문반모집 -&gt; 직업으로 하실분 (경매 배우면서 수익가능)</li> <li>3)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gt; 평생 회원반</li> </ol> <p>광주 광산구 쌍암동(근린상가) ▶ 감정가 5억1천 → 최저가 3억6천 (7/14) 광산구(근린상가) ▶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1억5천 (7/27) 광산구 정덕동(아파트) ▶ 감정가 4억5천 → 최저가 3억 1천 (8/04) 서구 매월동(임야) ▶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03) 북구 용봉동(근린상가) ▶ 감정가 32억 → 최저가 18억 (8/04) 서구 처평동(근린상가) ▶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3) 동구 윤림동(근린주택) ▶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 4억5천 (5/26)</p> <p>전남 장성군 서삼면(농지) ▶ 감정가 1억4천 → 최저가 8천(8/03) 담양군 대덕면(임야) ▶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 (8/3)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1억1천 (8/3) 담양군 월산면(임야) ▶ 감정가 4억7천 → 최저가 3억3천 (8/3)</p> <p>시외 경남 김해시(숙박시설) ▶ 감정가 28억 → 최저가 14억 (7/22) 전남 영암군(근린시설) ▶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 2억8천(7/19)</p>
<p>010-6670-9800 (062-382-5500)</p>		